중국 진출기업 국내복귀 유치 성과

익산시, 주얼리 기업 투자설명회서 유치활동 벌여

익산시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중국 청도 등지에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국내복귀·유치활동을 펼쳐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시청 관계자 5명, 민간유치단 2명 등 총 7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출장단은 중국 청도의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 회원사 26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현지에서 적극적 유치활동을 펼쳤다.

21일 투자설명회에서는 24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익산시는 기업환경, 익산패션단지 입주조건, 기반·지원시설인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주얼리 임대공장 등과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들은 익산의 지원정책과 현재 임대공장에 입주한 하이쥬얼의 인력수급, 자동화노력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에 관심을 나타냈다.

시는 지난해 중국출장 시, 초기자본이 부족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임대공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중국 현지여론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올해 임대공장 2동을 지은바 있다. 시는 내년에도 36억을 확보, 임대공장 2동 건축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특히 지난 10월, 임대공장에 입주하고 12월 초 첫 선적의 성과를 이룬 ㈜하이쥬얼 방상명 대표는 투자설명회 장에서 그간의 준비상황과 투자진행 과정 등을 매뉴얼화하고 익산 복귀에 관심 있는 회원사와 공유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개별기업에 대한 면담도 이뤄져 L사 등 5개사와 면담을 가졌다. 중국 내 어려워지고 있는 기업환경을 타개할 방책으로 익산을 소개하고, 입주여건과 지원책을 설명했다.

기업들은 익산패션단지의 기업환경을 검토하고, ㈜하이쥬얼의 익산 공장 성공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춘 익산시 문화산업국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투자설명회를 통해 익산을 소개하고 많은 기업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관심 있는 기업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내년 초 익산에 직접 초청하여 익산의 투자환경을 보여주며 투자설명회를 갖는 등 유치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익산시는 국내 복귀 관심기업들이 최저임금제도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어,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인력풀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범 추진하고 있는 남중동 부녀회원, 원광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에 이어 전 읍·면·동 부녀회원, 시니어클럽 등 공동작업장 수요조사를 내년 1월 중 실시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11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시는 이 같은 대책이 유턴기업 인정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지원체계 간소화 등이 2019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노사민정협, 고용산업위기 극복 공동선언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군산시는 지난 24일 2018년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기업인협회 대표, 군산시의회, 법률 및 노무 전문가 등 협의회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역위기극복, 청년일자리창출,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선진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고 했으며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일자리 모델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협의회 위원장인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모델,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협의체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복지지원과, 올해 행정 각 분야 두각

군산시, 복지지원과 우수기관 선정

군산시 복지지원과가 올해 행정각 분야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소외계층의 복지행정에 앞장서 온 복지지원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복지 노인, 기초, 의료, 자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복지부문 모든 분야에서 개인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 분야에서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및 경로당을 순회하며 홍보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 대상자 발굴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박성이 주무관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추은택 주무관, 홍세미 주무관, 이정은 주무관, 고성진 주무관이 각각 기초생활보장분야, 의료급여분야, 자활사업분야, 노인복지시설분야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돼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 복지지원과는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9개 지표 중 7개 지표에서 전라북도 1위(11월말 기준)를 차지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자활참여자 성공률 ▲기초연금 신청률 등으로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 예산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은 노인복지사업비 1,400억, 저소득층 복지사업비에 390억원, 장애인 복지사업비에 257억원을 편성해 사회적 약자 권리구제와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9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제안해 15억의 국비사업에 선정돼 군산시 승화원 추모4관과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 미흡했던 점들을 보강하여 2019년에는 보다 많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누리는 행복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복지지원과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개의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군산행복한집 등 8개 노인시설, 군산목양원 등 13개 장애시설, 베데스다요양원 등 22개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원광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등 22개의 노인 주 야간 보호센터, 514개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문화원 동지팥죽 나눔 행사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가 지난 21일 동지를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다.

새해에 무병장수와 희망을 소원하는 동지팥죽 나눔 행사는 2009년 동지 액막이 행사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로 확대됐다.

이재호 익산문화원장은 "전통사회에서는 흔히 동지를 '작은설'이라고 하여 설 다음가는 경사스러운 날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등의 말이 전해졌다"며 "2019년에도 문화로 행복한 문화 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원광대 LINC+사업단 직원 이희수씨, 전북도지사 표창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 지역선도센터 이희수씨가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일 전북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산학협력 확산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도민들에게 산학협력뿐만 아니라 이야기 전달을 위해 도민 기자를 시작한 이희수 씨는 2015년부터 전라북도 인터넷뉴스 '전북은 지금' 도민기자로 활동하면서 교육·문화예술·정책·산학협력 분야 취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창·취업 시대' 등 다양한 기사로 도민과 소통해 왔다.

이희수 씨는 "큰상을 받아 기쁘고, 감사하다"며, "산학협력의 지역 확산과 관련하여 객원기자 활동의 중요성을 깨우쳐주신 송문규 산학협력단장님, 주변에서 늘 따뜻하게 성원해주신 모든 분과 저의 글을 읽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더욱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희수 씨가 근무하는 원광대 LINC+사업단 지역선도센터는 맞춤형 인력양성과 함께 사회적경제 및 문화관광예술 분야 지역교류공헌사업을 수행할 계획인 가운데 1월 익산시 유관부서 및 코레일 전북개발본부와 협업을 통해 'LINC+와 함께하는 유라시아 철도 거점 익산역 청춘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강좌 모집

군산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공장소를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확대해 평생학습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동네문화카페 420강좌, 배달강좌 130강좌 등 총 550개 강좌를 모집한다.

내년 2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주간 운영되는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는 군산시민이 5명 이상이 모여 희망 강사·강좌·장소를 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재료비와 교재비는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평생학습관으로 방문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인재양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에 앞서 시는 1월 3일과 4일 대강당에서 2회에 걸쳐 2019년도에 새로워지는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동네문화카페'는 소상공인 사업장 276개소에서 시민 2,461명이 395개 강좌에 참여해 활발하게 운영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글마루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최우수'

익산시 글마루작은도서관이 전라북도 주관 2018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평가는 중앙과 지자체 지원으로 조성된 전북도내 공·사립 작은도서관 280개소(공립 133, 사립 147)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은도서관 평가는 도서관 경영, 지역협력 및 홍보, 인적자원, 장서 및 운영환경 등 영역별 28개 평가지표의 종합적인 운영평가로 시군별 자체심사 후 도 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를 통해 최우수 2개소, 우수 3개소, 사립, 장려 4개소 총 9개소의 우수도서관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글마루작은도서관은 독서통장 프로그램 도입과 토요일 연장개방 실시, 활발한 지역연계 등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실적이 전년도 대비 2배가량 성장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지리적 위치상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정보교류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해 동안 창의사고력 게임, 슬로우 리딩, 야생화 자수, 독서캠프 등 총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어울림작은도서관은 다양한 독서코너 설치와, 이용자들이 원하는 일일 특강을 총 8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수채화 캘리, 요리교실, 은초롱 책읽기, 창의블록 등 22개 프로그램을 시행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배산작은도서관은 어르신을 위한 대활자본 도서, 배산작은도서관 시네마, 시시락락(時時樂樂), 황혼의 캘리그래피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익산=우병희 기자